

연둣빛 설레임...봄빛 물든 장성

걸어도 좋고 바라만 봐도 좋은 '장성 힐링여행'

계절은 저마다 색(色)을 지니고 있다. 여름은 초록색, 가을은 붉은색, 겨울은 흰색. 하지만 장성의 봄은 뭔가 다르다. 장성의 봄은 모든 색을 지녔기 때문이다. 4월의 끝자락, 아름다운 '봄빛'으로 물든 장성군을 찾아 보는 것은 어떨까.



황룡강 수변공원



축령산 편백나무숲



장성의 핫 플레이스 '엘로우 출렁다리'



백양사 아기단풍길



필암서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 '황룡강'

장성에서 내려 청운지하차도를 통해 기차길을 건넌다. 지하차도를 나오자마자 펼쳐지는 건 탁 트인 벌판이다.

발짝이 보이는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를 향해 10분 정도 걸으면, 장성군을 가로질러 흐르는 황룡강을 만나게 된다. 누런 용이 살았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지자체 최초의 컬러마케팅 '엘로우 시티 장성'은 이곳에서 시작됐다.

황룡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으로 불린다. 가을에 열리는 '황룡강 노랑꽃잔치' 때문이다. 황룡강변 20만㎡(약 6만 평)에 핀 10억 송이의 꽃들이 가을 내내 향긋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개최 1~2년 만에 장성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을 정도로,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황룡강을 찾았다.

강변길을 걸으니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린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비록 지금은 키 작은 싹이지만, 한 달 뒤면 황룡강을 알뜰스럽게 채색해줄 것이다.

지난 가을에 이은 황룡강의 '두 번째 변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

장성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한다.

이러한 장성호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부터 북이면 수성리까지 이어진다.

7.5km 길이로, 왕복 네 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변길은 호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나무데크길로 연결되는데, 이곳이 장성의 '핫 플레이스'다.

경사가 완만하면서도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독특한 재미가 있어 주말마다 연인,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나무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호수를 가로지르는 엘로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다. 총 길이는 156미터로, 다리 한 가운데까지 걸어가면 호수의 전체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엘로우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장성호의 풍경은 한 마디로 절경(絶景)이다. 휴대폰 카메라로도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다. 물론, 짜릿한 스릴은 '담'이다.

◇초록내음 가득한 청정지역 '축령산 편백나무 숲'

축령산에는 편백나무를 비롯해 삼나무, 낙엽송 등 수령 5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이루어진 700여 ha의 숲이 있다. 춘원 임종국 선생이 홀로 일군 것으로 유명한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 조림지다.

숲을 걸을 때면 마치 각기 다른 무대의 장막이 걷히듯, 길목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하늘로 곧게 뻗은 편백나무 숲에서는 이국적인 정취마저 느껴진다.

축령산 편백나무 숲은 '치유의 숲'으로 잘 알려져 있다. 편백나무 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강, 살균작용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

여기에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 전국의 산촌마을 대기질 조사에서 가장 오존 수치가 낮은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 장성군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축령산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준비 중이다.

◇단 둘이 걷고 싶은 연둣빛 아기단풍길 '백양사'

봄의 백양사는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벚꽃길이 유명하다.

하지만 봄 한 철 간직했던 순백의 아름다움은 이미 세상에 흩뿌려졌다.

이제부터는 새로이 고개를 내민 연둣빛 아기단풍을 감상해야 할 때다.

머리 위로 가려진 단풍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다. 짙게 숨겨두었다가 소중한 사람과 단 둘이서만 걷고 싶은 길이다.

아기단풍길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고불매와 백양사 뒤편 비자나무 숲도 수려함을 자랑한다. 백암산 백학봉은 등산 코스로 추천한다.

좀더 깊은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다면 백양사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 문을 두드려 봐도 좋다.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산길 따라 걸어보는 명상, 혹은 조용한 산사에서 쉼. 템플스테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을 것이다.

◇검은 목으로 써내려간 선비의 기상 '필암서원'

'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필암서원은 선조 23년(1590), 대학자인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의 학문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호남 제일의 사액서원이다.

필암서원에는 조선시대 인종 임금에 하사한 목죽도 판각과 보물로 지정된 서책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경장각,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학연루 등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다량 보존되어 있다. 또 공부하는 곳을 앞쪽에, 제사 지내는 곳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조선시대 건축물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재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아홉 개 서원은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필암서원은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림문화체육교육에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교육생들의 필수 코스다.

홍길동축제의 '洪길동무 꽃길축제'로의 변신을 이끌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는 "황룡강과 장성호, 축령산 등 장성군이 지닌 최고의 가치가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및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열린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4월 16일 ~ 2019. 4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승인과 6건의 조례안을 의결 하였으며, 제2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 6. 17. ~ 2019. 7. 3. (1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8회계년도 통합결산 승인 등 기타 안건을 처리 할 예정 입니다.

의장 정철희

부 의장 허정임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량

일반행정위원장 정경임

경제건설위원장 정현웅

의원 김형모

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